<https://www.hyundai.co.kr/news/CONT0000000000081319>

**제목:현대자동차, 통합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앞장선다**

**<원문>**

현대자동차가 경기도와 협력해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에 나선다.

현대자동차와 경기교통공사는 안산시 대부도 전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화)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셔클’을 MaaS(Mobility-as-a-Service)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여 경기교통공사를 지원한다.

이번에 시작되는 통합교통서비스는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기반의 통합 서비스를 경기도 전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총 6개 지역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똑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한다. 똑타는 현대자동차가 셔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경기도 맞춤형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서비스 사용자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실시간 수요와 교통상황을 반영한 경로로 차량을 배차 받고, 원하는 장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만약 배차가 어려울 경우 주변의 공유 킥보드를 안내해 사용자의 이동을 돕는다.

또한 사용자가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경우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어 기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 주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똑타의 기반이 되는 현대자동차 셔클 플랫폼은 지역별 교통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약간의 커스터마이징 만으로도 지역별 목적과 대상에 맞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플랫폼 도입 전 교통상황 분석은 물론 서비스 운영 지원까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빌리티 업체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MCS LAB 김수영 상무는 "국내 최초 AI 솔루션 기반 수요응답교통을 선보였던 셔클이 지난 2년 간의 운행경험을 토대로 경기도 똑타앱을 제공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일상 속 이동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교통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작년 8월 경기교통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또한 지역 교통 특성을 반영해 공유 자전거,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약자도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화를 활용한 호출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뤼튼 요약 및 정리본>**

현대자동차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교통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셔클'을 MaaS(Mobility-as-a-Service)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경기도 전역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는 똑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되며, 사용자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실시간 수요와 교통상황을 고려한 경로로 차량을 배차받아 원하는 장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차가 어려울 경우 주변의 공유 킥보드를 안내하여 사용자의 이동을 돕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경우 환승 할인 혜택도 제공되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셔클 플랫폼은 지역별 교통환경에 맞춰 개발되어 다양한 모빌리티 업체와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으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교통상황 분석부터 서비스 운영 지원까지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MCS LAB 김수영 상무는 "셔클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똑타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 속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공교통 서비스 플랫 폼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경기도와의 협업으로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획득하였으며, 디지털 약자들도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화 호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